



경상남도

느티나무

대학자 남명 조식의 유적을 지킨 느티나무



지정번호 합천-12-2-9
지정년도 2002
관리기관 합천
수령 460년
수고 27m, 27m
흉고둘레 5,7m, 4m



경남 합천군 삼가면
외토리 1374
35° 22' 51.00" N
128° 06' 14.00" E

2그루인지 1그루인지를 구별하기 어려운 보호수 (합천-12-2-9) 느티나무는 의령군에서 합천군으로 건너는 '남명교' 다리 근처의 도로 옆에 자라고 있다. 느티나무의 나이는 460년으로 추정된다. 나무높이는 2그루(임의로 2개체 판단) 모두 27m, 하나의 가슴높이둘레는 570cm, 밑동둘레는 745cm 정도이다. 나무갓은 너비가 15m 정도이다. 다른 하나의 가슴높이둘레는 400cm, 밑동둘레는 590cm 정도이다. 나무갓은 너비가 14m가량이다. 원줄기는 각각 높이 3m 정도에서 여러 개로 갈라져 위로 향하고 있다. 2그루는 합쳐지는 가운데보다 그렇지 않는 바깥으로 가지를 쳐서 나무모양을 만들고 있다. 생육상태는 양호하다. 전승하는 이야기는 잘 알려진 것이 없으나 조선 중기 영남학파의 남명 조식과 관련한 것 등이 있다. 조식은 조선 중기의 큰 학자이었으며, 여러 차례 관직이 내려졌으나 한 번도 부임하지 않았고, 현실과 실천을 중시하며 비판정신이 투철한 학풍을 수립하였다. 조식은 지금의 외토리 토동에서 태어났다. 5살에 고향을 떠난 조식은 한양 생활을 거쳐 30세부터

처가가 있는 김해에서 살다가 48세 때인 1549년 이곳의 양천강변에 뇌룡정을 짓고 학문을 연구하며 제자들을 가르쳤다. 조식은 61세에 지리산 아래 산청군 덕산으로 옮겨 산천재를 짓고 말년을 보냈다. 따라서 남명교에서 도로를 따라 200m 정도의 거리에 위치한 느티나무는 조식이 어렸을때에 멋모르게 놀던 곳이고, 48세부터 환갑까지 제자들과 함께, 정신적 지주이면서 심터의 역할을 했을 것으로 짐작된다. 느티나무 옆에는 본가와 생가를 잇는 주요도로를 '남명로'라고 이름하고 있다는 표지판이 있고, 조식의 영독수咏獨樹(홀로 선 나무를 읊다) 시비가 있다. 또한 느티나무 바로 옆 길가에는 외토리 쌍비가 있다. 비각 안에 효자비와 백비가 나란히 서 있어 쌍비로 불리는데, 오른쪽 비는 글씨를 볼 수 없어 백비라 부른다. 고려 말 벼슬을 그만두고 낙향한 이온의 효행을 기리기 위해 세운 효자비다. 이온은 조식 선생의 외가인 인천 이씨 가문이다. 쌍비 앞에 서있으니 남명선생을 기리는 뇌룡정과 용암서원이 손에 잡힐 듯 가깝다.